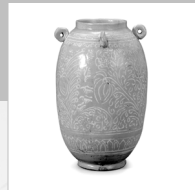


한국 자기문화의 발생

| 이희관 서강대 강사 |





한국 瓷器文化의 발생

이 희 관 서강대 강사

I 한국 자기문화의 전개와 특징

우리는 흔히 고려를 일러 청자의 나라, 조선을 가리켜 백자의 나라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맺어왔고, 아울러 자기가 우리 문화를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언제 출현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9세기 또는 10세기의 어느 때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현한 자기는 청자였다. 우리가 흔히 “고려청자”로 일컫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고려청자가 출현한 직후부터 백자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고려 전 시기를 통하여 볼 때 그 생산량과 품질에서 청자에 뒤져, 역사적으로 거의 잊혀져있었을 뿐이다.

출현 초기의 청자와 백자의 주류는 완(碗)이었다. 이 완은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서 이 시기에 제작된 청자와 백자들이 주로 음다용(飲茶用) 그릇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품질도 그다지 높지 않아,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이른바 비색청자(翡色靑瓷)는 아직 역사의 무대에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12세기경에 접어들어 고려청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11세기경에 출현한 비색청자가 더욱 발전하여 12세기 후반~13세기 초반의 비색청자는 “천하제일(天下第一)”로 통하였다. 기종과 기형도 다양화되고 화려한 불교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하고 정교한 기법으로 문양을 새긴 비색청자가 고려 중기를 풍미하였다. 고려 특유의 상감청자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 남송의 고종황제가 이러한 비색청자를 크게 애호하였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품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14세기는 고려청자의 쇠락기라고 할 수 있다. 기형은 정

교합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문양도 거칠어져서, 세련되고 높은 품격은 이미 고려청자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그렇지만 고려청자의 질적 하락은 많은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청자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러한 변화가 실용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성리학적 지배이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려말·조선초는 흔히 분청사기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분청사기는 백토로 분장(粉裝)한 회청색의 사기라는 의미이며, 문양기법에 따라 상감(象嵌)·인화(印花)·박지(剥地)·조화(彫花)·철화(鐵花)·귀얄·덤병분청사기로 분류한다. 분청사기는 고려상감청자의 맥을 이은 것인데, 박지·조화·철화분청사기 단계에 이르러서는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문양을 선보임으로서, 고려상감청자의 잔영에서 벗어나 분청사기 특유의 미적(美的) 세계를 구축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분청사기의 미적 세계를 한국미(韓國美)의 원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귀얄·덤병분청사기 단계에 이르러 분청사기 특유의 미적 특질을 상실하고 “백자화(白瓷化)”를 추구함으로써 16세기경에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고려시대에도 백자가 제작되었지만, 백자가 품질적인 측면이나 생산량 등의 측면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자기로 자리잡은 것은 조선시대에 접어든 이후의 일이다. 오늘날의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높은 품질의 관요백자는 고려백자와는 그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중국 경덕진(景德鎮) 어용자기(御用瓷器)의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백자가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1467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 설립된 것이었다. 분원에서는 예외적인 의례용 기물을 제외하고서는 문양이 없는 순백색의 어용백자를 생산하였다. 성리학을 신봉하여 사치를 배격하고 실용성을 추구한 조선 초기의 지배계급이 문양을 기피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문양, 특히 청화문양은 그 안료가 매우 고가여서 기물의 단가를 올리는 주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양 자체가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전국의 각지에서 관요백자를 모방한 비교적 낮은 품질의 백자들을 생산하여 양반이나 일반민들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16세기 말~17세기 초의 왜란과 호란은 조선의 백자산업의 토대를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요장은 폐쇄되고 도공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백자의 품질의 하락과 생산량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란이 끝나고 점점 백자산업이 회복되어가면서 18세기경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한 백자제작의 경향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순백자가 주류를 이루고, 문양을 시문하더라도 화려하지 않고 간결한 문양을 선호하였다. “달항아리”로 불리는 대형의 원호(圓壺)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기종의 하나이다.

19세기의 백자는 그 이전의 백자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그 중요한 특징으로 다양한 기법의 문양이 크게 유행하고 기종도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문양이 유행하게 된 요인으로 중국과 일본의 화려한 채색자기가 수입되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신적으로 조선왕조를 지탱해온 성리학적 이념이 점차 희석되고 자본주의적인 이념 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상업과 농업 경영 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새로운 고급백자의 수요층으로 성장하면서 그러한 화려한 채색자기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였다. 이러한 경향은 백자의 질적 하락을 부채질하고, 19세기말에 분원마저 민영화되면서 조선백자의 맥은 사실상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이 한국 자기문화의 대체적인 흐름인데, 한국 자기문화의 내용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관(通貫)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질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한국자기의 수요시장이 거의 국내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자기들이 여러 경로로 중국과 일본 등에 전해졌지만, 전체적인 규모에서 볼 때, 매우 미미한 양이었다. 그러므로 무역자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중국의 월요나 용천요 및 경덕진요 등과 같은 요에서 제작한 자기와는 그 전개과정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 자기문화를 주도한 것이 관부(官府)였다는 점이다.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강진요도 국가에 의해서 자기소(瓷器所)로 편제되었으며, 관부에서 제정한 “견양(見樣)”을 토대 그 기를 제작하여 중앙에 공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이 강진요가 고려청자의 제작을 선도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조선시대의 분원은 어용자기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요(官窯)였다. 이 분원은 그 조직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부가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러므로 조선백자의 제작에 지배계급의 이념이 반영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려청자의 경우도 조선백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II 고려청자의 출현

1. 자기의 탄생

자기를 발명하기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은 도기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초기의 도기는 소성온도도 그다지 높지 않고(대략 700~900°C), 유약을 입할 필요도 없었으며, 정제되지 않은 흙을 사용하여도 소성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제작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의 경우는 소성온도가 높았기 때문에(1000°C 이상) 그 소성온도에 견딜 수 있는 특정한 성분의 광물질이 알맞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흙으로는 자기를 소성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태토의 표면에 입히는 유약의 경우도 성분 구성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온에서 모두 연소되어 버리거나 흘러내려 유약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제작하게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태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SiO₂나 Al₂O₃의 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흙을 찾아야 하고 아울러 고온에서 유리질의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유약을 배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토로 성형을 하고 유약을 입힌 후 태토와 유약이 용융될 때까지 소성 온도를 상승시켜야한다. 이 과정은 특수한 구조의 요로(窯爐)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

였다. 하지만 소성온도가 너무 높으면, 유약이 연소되어 버리고 기물이 변형됨으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난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기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상대(商代) 중엽에는 이미 자기를 소조(燒造)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자기는 흔히 청동기를 모방한 기형이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초기의 자기를 원시자기, 또는 원시청자라고 부른다. 최근의 발굴결과에 따르면, 원시청자는 절강성의 덕청현(德淸縣) 일대에서 제작하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시청자는 태토도 비교적 거칠고 유약도 안정적으로 용융되지 못하여 과소(過燒)되거나 흐름현상이 심하다. 이러한 질적 상태는 기원후 2세기말경에 월요에서 정제된 태토와 안정적인 유약이 시유된, 이른바 성숙기 청자(成熟期靑瓷)가 제작될 때까지 이어졌다. 우리가 청자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성숙기청자를 가리킨다.

백자의 제작은 청자에 비해 훨씬 늦게 시작되었다. 발굴 자료에 따르면, 북조시대 말기에 형요(邢窯)에서 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대(唐代)에 형요의 영향으로 북방에서는 백자가, 남방에서는 월요의 영향으로 청자가 주로 제작되어 이른바 “남청북백(南靑北白)”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지만 9세기, 혹은 10세기에 이르러 한반도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할 때까지 자기는 중국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제작하지 못하였다. 즉 대략 2000여 년 동안 자기의 제작과 발전은 중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나라였다.

2. 고려청자의 출현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

한반도에서 언제 자기가 출현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한국도자사연구상의 가장 뜨거운 논쟁점 가운데 하나로서, 아직도 논쟁이 진행중이다. 기존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9세기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10세기 후반설이다.

9세기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요시오까(吉岡完祐)이다. 그는 한국의 초기청자에 보이는 해무리굽완이 9세기경에 제작된 월요의 옥벽저완(玉璧底碗)과 유사한 형식이기 때문에 해무리굽완의 연대도 9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비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한 초기청자의 제작기술이 장보고시대에 월요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후 김재열(金在烈)과 최건(崔健) 등이 발굴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9세기설을 더욱 강화하였다.

9세기설의 핵심적인 근거는 한반도의 해무리굽완과 월요의 옥벽저완이 동일한 형식으로,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주장은 월요에 대한 발굴자료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루어진 월요의 발굴결과에 따르는 한, 해무리굽완과 옥벽저완은 굽폭이 넓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한 조형적 특징을 찾기 힘들다. 내저원각(內底圓角)의 유무(有無), 구체적인 굽폭의 크기, 측사면의 경사도, 그러한 굽 형식

이 간취되는 기종(器種), 그릇의 높이와 저경의 비율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9세기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한다.

9세기설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거의 해무리굽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그것은 곧 9세기설의 성립 가능성 여부의 문제와 직결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세기경의 월요 청자와 우리나라 초기청자—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초기청자—의 또 다른 영향관계의 확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양자의 영향관계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사실 관계의 확인을 돌려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해무리굽완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와 9세기경의 월요 청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찾을 수가 없는 셈이다. 만약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청자가 9세기경에 월요 청자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0세기 후반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윤용이(尹龍二)이다. 그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가장 표식적인 기종인 완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루며 이른바 '선(先)해무리굽완'에서 해무리굽완으로 변화해간다는 전제 위에서 고창군 용계리요지에 인접한 건물터에서 출토된 「태평임술(太平壬戌)」, 명평와편과 배천군 원산리요에서 출토되거나 출토된 것이 분명한 청자 「순화3년(淳化三年: 992)」, 명제기 및 청자 「순화4년(淳化四年: 993)」, 명호 그리고 시흥시 방산동요에서 출토된 이른바 청자 「갑술(甲戌)」, 명뚜경 등 기년명(紀年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주요 토대로 하여, 970~980년대에 월요의 도공들이 한반도에 이주하여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기년명 자료에 대한 해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상세하게 지적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내용을 되풀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세기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초기청자와 10세기 후반경의 월요 청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요소가 문양이다.

근래 월요의 발굴결과에 따르면, 만당·오대시기에는 문양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원인은 이 시기에 월요에서는 문양보다는 기형의 우아함과 유색의 자운(滋潤)함을 중시한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월요 청자에서 음각문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북송대에 접어들고 나서였다. 이 시기의 음각문은 음각선이 매우 가늘고 엄정한 것—중국에서는 이러한 음각문을 세선획화문(細線劃花紋)으로 부른다—이 특징이고, 그 대표적인 문양으로 앵무문·쌍접문·쌍봉문·용문·화조문·운룡문 등이 있으며, 주로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기종인 완과 접시의 내저면에 새겨졌다. 현존하는 많은 청자 「태평임술(太平戊寅)(978)」, 명완들과, 이것들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팽호(澎湖) 출토 월요 청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윤용이의 견해대로 970~980년대에 월요의 도공들이 고려에 건너와서 요업을 시작했다면, 그 시기에 제작된 청자에는 다양한 음각문이 새겨졌으리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기청자에는 거의 예외 없이 문양이 없다. 우리나

라 초기청자와 10세기 후반경의 월요청자 사이의 이와 같은 괴리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고려청자의 출현과 월요(越窯)

현재 고려 초기청자가 월요의 영향 아래에서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가 강진 용운리요(龍雲里窯)를 중심으로 한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보다 일찍 출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점들에 이의가 없다.

초기청자의 출현시기와 관련하여, 그것이 월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한반도의 중서부지방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는 전제 위에 선다면, 우리는 의당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와 월요청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서부지방에는 많은 초기청자요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방산동요이다. 이 요가 원산리요 등과 더불어 가장 이른 시기의 초기청자요로 알려져 있으며, 과학적 발굴이 이루어져 월요 청자와의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방산동요는, 가마의 좌우편 넓은 범위에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나, 요상(窯床)에 퇴적된 모래층의 높이가 1m 이상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청자의 출현 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짧지 않았을 이 요의 전 운영기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의 양상이다. 이 시기의 청자의 양상, 예컨대 청자의 기형이나 소성공예 그리고 문양기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양상이 어느 시기의 월요 청자의 양상과 가장 유사한가를 찾아내는 것이 초기청자의 출현시기를 밝히는 지름길이 된다.

월요청자 가운데 완과 주자(注子)와 탁잔(托盞)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형적 변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기종이다. 방산동요의 초기 기물 가운데에도 이 기종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방산동요 초기의 완을 대표하는, 이른바 선해무리굽완은 굽의 형태, 굽폭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형에서 월요의 오대(五代) 후기 옥환저완과 흡사하다. 방산동요 초기의 이른바 나팔구 연주자는 참외 형태의 몸체에 나팔 모양의 주구가 부착되어 있고, 특이하게 경부와 동부 경계면에 돌대가 있는데, 월요 오대 후기의 주자도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탁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방산동요 초기의 잔탁과 오대시기의 잔탁의 경우 모두 하나같이 문양이 없으며, 굽이 비교적 높고 약간 밖으로 벌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방산동요 초기의 이 기종들은 모두 월요 오대시기의 기물들과 가장 큰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완과 주자의 경우는 오대시기 가운데에서도 후기의 기물들과 기형적으로 더욱 흡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 밖의 기종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성공예적(燒成工藝的)인 측면에서 보아도 방산동요 초기의 양상은 오대시기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방산동요 초기에 오대시기 월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량의 기물에 높이가

낮은 점권(點圈)을 받쳐서 소성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오대 전기에는 월요에서 점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방산동요 초기의 소성공예도 월요의 오대 후기 양상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장식공예의 측면에서 볼 때, 방산동요 초기의 기물에는 문양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월요의 경우는 오대시기의 기물들에는 거의 문양이 없다. 10세기 중엽경에 드물게 획화문(劃花紋)이 시문되기 시작되어 북송초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획화문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문양의 측면에서도 방산동요 초기의 기물들은 월요 오대시기의 기물들과 친연성이 강하다.

요컨대, 방산동요 초기의 청자의 양상은 기형과 소성공예 및 장식공예 등 전반적인 면에서 오대 후기의 월요 청자의 그것과 가장 흡사하다. 이 점에서 고려 초기청자는 10세기 중엽, 즉 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출현하였을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시기가 940년대의 어느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 고려청자 출현의 주인공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현한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는 기형이나 유색, 그리고 번조법 등에서 중국 오대 후기에 월요에서 제작된 청자들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가마의 구조도 월요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중서부지방의 대표적인 초기청자요인 배천군 원산리요와 시흥시 방산동요에서는 각각 「이(李)」·「왕(王)」·「최(崔)」·「심(沈)」과 「오(吳)」·「목(木)」·「범(范)」과 같은 중국식 성(姓)을 사용한 여러 명의 도공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중국식 성을 칭한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 심지어 고려를 건국한 왕건마저도 본래 성이 없어, 후에 자신의 이름 가운데 첫 자인 「왕(王)」을 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하물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고려의 도공들이 이 시기에 중국식 성을 칭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점에서 그들은 월요의 도공들이 거의 확실하다. 주요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는 바로 오대 후기에 이들 월요 도공들의 대규모적인 이주를 토대로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때 이주해온 월요의 도공들은 월요의 청자제작기술을 그대로 중서부지방에 이식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그 요들이 폐요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의 청자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한 청자의 양상과 번조법 등이 월요의 그것과 거의 흡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도기를 제작해온 토착 도공들도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였으나, 그들은 주로 청자의 제작에 있어서 비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요 도공의 경우도 신기술인 청자제작기술을 제공하고 실제적인 청자의 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그 요들을 설립·운영한 주체는 각 요들이 위치한 지역의 호족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신라말·고려초 지방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 권력과 경제력

을 바탕으로 월요 도공의 기술력과 그 때까지 도기를 제작해온 토착인 도공 및 일반농민들의 노동력을 결집시켜 신소재인 청자를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부를 축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경제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된 사요(私窯)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의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각 요의 운영주체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청자를 돌려놓고 백자의 생산에 주력하거나, 자기 생산의 토대가 되는 가마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도 그 요의 운영주체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Ⅲ 고려 초기청자의 전개

고려 초기청자가 월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출현하였지만, 그 후의 전개과정은 월요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예컨대, 고려 초기청자의 표식적 기종인 완의 경우 옥환저완→옥벽저완→옥환저완으로 변화한 반면, 월요의 그것은 동일한 시기에 옥환저완→권족완으로 이행하였다. 즉 양자는 서로 다른 전개과정을 밟은 셈이다. 주자와 잔탁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문양의 경우도, 고려 초기청자가 기본적으로 무문(無紋)으로 일관한 반면, 월요에서는 오대시기에 주로 무문청자(無紋靑瓷)를 생산하였지만, 북송시기에 접어들어 문양의 전성시기를 맞이하였다. 소성공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 초기청자와 월요는 갑발류와 점권의 전개과정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전개과정상의 차이는 고려 초기청자의 출현 이후에는 그것과 월요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이 시기에 고려 초기청자에 대하여 월요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고려 초기청자는 월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출현하였지만, 그 후 초기청자시기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월요와 거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월요가 고려 초기청자의 모태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고려 초기청자와 월요 청자 사이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접어든 것은 대략 95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는 이 시기에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 백자(초기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초기백자의 제작기술은, 방산동요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백자 기종 가운데 하나인 백자옥벽저완의 조형적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항와요(缸瓦窯)나 임동요(林東窯)와 같은 요대(遼代) 북방지역의 요장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산동요의 경우, 백자들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청자에 비해 높다. 그 대부분이 정제하게 성형되었고, 유약의 용융상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유층의 두께가 일정하고 유면도 매끄럽다. 방산동요의 백자와 청자의 품질의 차이는 소성공예적 측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요에서는 청자와 백자를 한 요로 안에서 동시에 소성하였는데, 종종 한 갑발 안에 청자와 백자를 함께

넣어 소성하였다. 이 경우 예외 없이 청자는 아래쪽에 놓고, 백자를 그 위에 놓았다. 따라서 백자는 내저면에 아무런 받침 흔적이 남지 않은 반면, 청자는 그곳에 지지분한 내화토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방산동요에서 새롭게 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백자는 고급품으로, 청자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롭게 유입된 백자가 고급자기로 인식되면서 고려의 자기 제작 상황도 크게 변화하였다. 청자를 주로 제작하던 용인 서리요(西里窯)는 청자 생산을 포기하고 전문적으로 백자만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여주 중암리요(中岩里窯)는 아예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백자만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10세기 후반 경의 일로 추정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0세기 말경에 이르러 원산리요와 같이 청자만을 생산하거나 방산동요와 같이 청자를 주로 생산하던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이 하나같이 소멸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인데, 이와 같은 현상도 역시 백자의 부상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요대 북방지역 계통 백자가 초기청자시대의 전 시기에 걸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고려 초기청자가 출현한 직후의 짧은 기간에 한정되었다. 그 이후부터 초기청자의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고려의 자기는 중국 도자의 별다른 영향 없이 독자적인 전개과정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리요와 방산동요와 같은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이 하나같이 소멸되면서, 늦어도 11세기에 접어들어 고려의 자기 생산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강진 용운리요와 고창 용계리요(龍谿里窯)를 비롯한 남서부지방의 요에서는 청자를 주로 생산하고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용인 서리요를 비롯한 중서부지방의 요에서는 백자를 생산하였다. 말하자면 고려의 자기 생산에 있어서 “남청북백(南靑北白)”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용인 서리요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원산리요와 방산동요를 비롯한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이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부상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자가 출현한 초기의 자기생산의 중심지는 중서부지방이었다. 남서부지방의 요들은 중서부지방의 영향을 받아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중서부지방의 대부분의 초기청자요들이 소멸하고 일부 요들이 백자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이 청자 생산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그 중심적인 요장이 오늘날의 강진군 대구면과 칠량면에 있는 여러 요장들이었다. 고려 중앙정부는 이 요들을 자기 소라는 독특한 행정단위로 편제하여, 중앙에서 사용할 높은 품질의 청자를 제작·공납하도록 하였다. 강진요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고려청자생산의 핵심 요장으로 자리잡았다. “천하제일”로 일컬어진 비색청자와 고려청자의 상징과도 같은 정교한 문양의 상감청자는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

IV

고려청자 출현의 수수께끼—고려는 어떻게 역사상 자기를 생산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을까?

고려청자가 출현한 10세기 중엽경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필 고려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하게 된 것일까? 왜 그 후 수 세기 동안 중국과 고려를 제외한 나라들은 자기를 제작하지 않은—또는 못한—것일까? 다소 엉뚱한 의문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문제는 고려청자의 출현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통일신라시대에 도기 제작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이 시기에 청자를 제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 시기에 자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성온도까지 화도(火度)(1000°C 이상)를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화도는 자기를 제작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자기를 제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시기에 고화도(高火度)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은 고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일본의 사나게요(猿投窯)의 경우도 이미 9세기경에 고화도를 얻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도기 제작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이 통일신라나 고려에 뒤진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수 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었다. 도기 제작 기술이 높다는 점과 자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새로운 재질의 용기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것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고 지탱할 수 있는 계층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결여된다면 새로운 재질의 용기의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은 용기 이외의 물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월요 도공들이 한반도 이주이다. 이들이 곧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자기 제작 기술 문제를 해결해 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시기에 고려에서 자기가 출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 시기에 많은 월요 도공들이 하필 한반도로 향한 것일까? 여기에서 통일신라 말기—후삼국시기를 포함하여—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혹 그들이나 그들의 후예들 가운데 일부가 월요에서 요업에 종사하다가 고려의 후삼국 통일 직후 한반도로 돌아왔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힘든 것일까? 이들의 주된 이주지의 하나가 바로 월요가 있던 절동지방(浙東地方)이었다는 사실은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튼 이 시기에 한반도에 이주한 월요 도공들의 성격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요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의 벽돌가마를 건축한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자기 제작 기술을

가진 도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자본을 투여하고 아울러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의 생산은 역시 불가능하다. 고려의 경우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호족들이었다. 각 지방에 산재하여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그들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던 지방사회의 지배세력이었다. 그들이 요장을 설립·운영한 목적은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해서였을 터인데, 이 시기에 그들이 신소재인 청자에 눈을 돌린 것이 흥미롭다.

고려 초기청자의 주 소비층은 누구였을까?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의 기종은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초기청자의 경우 수많은 기종 가운데 생산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완이다. 그리고 흔히 발(鉢)이나 대접으로 분류하는 기종도 중국의 학계에서는 완으로 분류하는 것들이다. 방산동요의 경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태반에 이른다. 이러한 완들은 주로 다완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초기청자요를 설립한 주목적은 주로 다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고려에서 대량의 다완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승려들이다.

신라말·고려초는 9산선문(九山禪門)으로 대표되는 선종(禪宗)이 크게 유행한 시기였다. 선종 승려들에게 있어서 차를 마시는 것은 중요한 일상이자 수행의 한 과정이었다. 교종(敎宗) 승려들과 음다(飮茶)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들 역시 수행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종 승려들의 경우와 크게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고려초의 왕들은 그러한 불교를 극히 중시하고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태조 왕건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였다. 현종(顯宗)이 10만 명의 승려에게 공양하였다(반승[飯僧])는 사실도 고려 초기에 승려의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크게 늘어난 승려층이 곧 고려 초기청자의 주요 소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고려청자 출현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월요 도공들과 호족들과 승려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자기의 제작기술과 생산 및 소비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하다. 즉 그들이 그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킨 셈이다. 그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된 최초의 시기가 곧 10세기 중엽이었으며, 그것이 고려청자의 출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야기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